



## 過去를 말하렵니다

###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력사항』

- 제22회 행정고시 합격(1978년)
- (現)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 (現)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 (前)자유선진당 대변인
- (前)자유선진당 정책위원장
- (前)나사렛대학교 부총장
- (前)건양대학교 부총장
- (前)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前)대통령비서실, 내무부, 국무총리실 근무
- (前)금산군수

### 『수 상』

- 홍조근정훈장(2002)
- 대통령근정포장(1992)
- 270개 NGO 단체 선정 국정감사우수위원 4년 연속 수상 (2008-2011)
-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4년 연속 수상 (2008-2011)
- 18대국회 4년연속 국감 우수위원 수상(NGO모니터단)
-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 국회의원 (Korea Life선정)



李明洙

## I. 글머리에

“障壁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歲月도 흘러  
끝없는 大地위에 꽃이 피었네.....”

「過去를 묻지 마세요」란 흘러간 옛노래를 처음 불렀던 年輪에도, 어느새 다섯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해갈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텅텅한 막걸리 잔이 연거푸 비워 지면서 한곡 뽑으라는 친구들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저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유행했던 「나애심」의 이 노랫 끝갈 청승맞게 흥얼대곤 했습니다. 스산한 바람 저편 황토흙 날리던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실패와 비련의 자욱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과는 다르지만 이제 겨우 합격이란 아주 작은 기쁨, 적어도 내겐 微細한 기쁨을 안고, 무딘 글재주로 감히 合格記라 이름하여 여기 過去를 말 하렵니다. 시방, 한무더기 시려움이 투영되는 창가에는 야윈 고목의 주위를 더듬으며 맴도는 回想의 가너린 숨결이 저만치 모두워져 있고, 짐짓 歲月의 뒤안길을 따라 축축이 哀愁의 아스한 지평을 새김하던 이름모를 懷憶의 빗길 이 홀로 허허한 트랙에 나래피고 있습니다.

## II. 試驗準備過程

題目을 그럴듯하게 試驗準備過程이라 붙였으나 사실은 失戀過程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겁니다. 물론 合格=戀愛成功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내게 있어서는 試驗準備過程=失戀過程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허튼 우스개 소리나 농담으로 考試界의 이 귀한 지면을 더럽히려는 건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드리워진 심원의 울타리를 탁 헐어놓고 솔직한 얘기를 적어보려는 게 자신의 지난 날을 반추해 보는 저의 기본태도일 뿐입니다. 미사여구나 왜곡된 어휘의 구사로 진탕 놀은 짓거리만 늘어봐서 머리종단 소릴 들으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1973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서울대 入試에서 어이없이 실패한 채 바로 成대로 밀려 온 변신 자체가 失戀의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학년 들어와서, 관악산으로 옮기기 전의 동숭동 캠퍼스가 바

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불쑥하면 고교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실패의 식을 진하게 느끼게 되어, 재수를 할 것인가 그냥 다닐 것인가로 상당히 방황했고 학교엔 별로 취미가 붙질 않았습다. 클럽에 들어봤지만 별 볼일 없었고, 야유회도 미팅도 썩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다. 그저 고민과 우울속에 혼자 거리를 쏘다니거나 방구석에 있기가 일쑤였습다.

시골 내려가서도 만나는 이들이 굳이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 왔을 때 힘 주어 대답해 봤자 그런 학교도 있느냐는 등의 좀 창백한 얘기만 들었습다. 누가 결코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子曰, 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 당시만 해도 어린 소견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었나 봅니다. 누구앞에 나서기가 싫었고 성격도 나도 모르게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것으로부터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었습다.

어영부영하다가 어쭙잡게 장학금도 타게 되고 해서 웬지 成大에 안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다. 그때도 역시 세월은 빨랐습다. 2학년이 되어 벌써 후배를 맞는 신입생 입학식날이 왔습다. 이런저런 일들로해서 그날 학교에 갔다가, 입학식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중에 유난히 살결이 뽀얗고 곱상한 한사람이 선뜻 눈에 띄었습다. 제 눈이 큰 편이기도 하지만 원체 괜찮아 보였습다. 인적없는 옛 성터에 피어난 한떨기 하얀 백합 같았습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서 뽀뽀한다고 제 주제 파악할 틈도 없이 그 순간부터 그 여학생에 눈길이 줄곧 쏠렸습다. 마치 그토록 그리던 理想型의 여자를 보았는가 싶었습다.

해서, 학교는 공부하러 간게 아니라 그 여학생보러 간거나 다름없습다. 재수 안하고 그냥 있었던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여러번 내쉬며, 이것이 성대 들어온 가장 큰 보람이요 희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다. 현대, 용케도 무슨 약속이나 한것처럼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있고 명륜당에 가면 명륜당에 있고 수선로에 올라보면 또 거기있고.....이게 혹시 천생연분이 아닌가 하는 환상에도 곧잘 사로 잡히곤 했었으며, 그때마다 걸핏하면 그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한이 없다는 독백을 거리낌없이 중얼거렸고, 언제나 저 여학생보고 똥단지 같은 고백을 할 것인가 하는 기회만 엿보았습다. 하지만 선뜻 나서려해도 웬지 내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르단 생각이 자꾸 발목을 붙잡았습다.

좀더 있어보자 하는 사이에 3학년이 되었고, 17回 一次가 임박했습다. 2학년때 강의들은 것도 있고 해서, 民總, 憲法, 國史에 집중적으로 40여일을

투자하여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으나, 二次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이므로 애매하게 建大二部大 그나마 낡은 의자를 2시간동안 짓몽개다 멧쩍게 나왔습니다. 소위 중도포기한 겁니다.

1학년때 시작했느니 2학년때부터 시작했느니 하는 같은 과 친구들의 소문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마음과 신경이 그녀에게로만 빼앗긴 탓으로 18회도 一次合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戀慕를 막간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뺑질나게 미팅에도 나갔습니다. 결국 잃은 건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地球의 回轉속에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만남이, 빨간 등불이 유난히도 반짝이던 어느 경양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주변머리가 없어서 직접은 못하고 나의 간절한 사연을 전한 그녀의 과 친구 덕택이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확실치 않아서 여러번 눈을 꿈벅여보고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내 살을 몰래 꼬집어보기도 했습니다. 허나, 분명 그녀는 내앞에 마주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이리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느닷없이 나오는 첫마디가 “직접 왔으면 안만나줬을텐데 누굴 통해서 만나고 아주 고등수범이군요” 다소 통명스러운 어조로 뒤통수를 먼저 치는 것이었습니다. 잦은 미팅으로 인해 속맥의 경지는 이미 벗어난 고로 뺑뺑스러운 그 위기를 잘 넘겨서,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같이 걸을 수 있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大成路의 마지막 은행잎이 어디론가 소슬바람에 밀리어 가고, 창경원 들담요엔 고소한 냄새를 연신 흘리우는 군밤장수 아저씨의 때묻은 코가 멋없이 번득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니,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물방앗간 첫사랑의 밤보다도 더 밝고 은은했었습니다. 둥근 달이 어김없이 까만 하늘 한복판에 동그마니 걸려 있었으니까요.

검은 철도위를 같이 밝으면서 좋아한다는 뜻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는 총동원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속동작으로, 버스가 오자 부리나케 몸을 싣곤 「굳바이」했습니다. 저런! .....야속하고 조금은 미웁기도 했습니다. 더욱 못나고 초라한 자신임을 확인 한 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아쉬워하며 찬바람만 나부끼는 어딘가를 조용히 혼자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無邊의 寒天과 어림없이 너른 지표사이의 「에프랑제」격 迷兒.....시린 두 동공엔 무질서한 星座들만 흐뜨려내릴뿐, 아무도 기다려주는 이 없는데 웬지 사뭇 견고 싶었습니다. 만남의 기쁨을 채 깨닫기도 전에 생이 별이라니.....너무 허망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문전 불처리가 잘못됐나 싶어서 곰곰 생각해 봤지만, 그녀 친구의 말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녀의 태도는 너무 완강했고 철저했으며 硬直했습니다. 그래도 못내 아쉬워 주저앉는 그리움은 쉬임없이 공허한 마음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계절은 바뀌어 大成路에 셋노란 개나리가 곱단히 꽃봉우리를 트는 새봄이 찾아왔고 파란색료가 끝없이 일렁이는 금잔디광장위엔 문행축전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놀이 좋아하는 天性에 1학년때부터 안빠진 쌍쌍파티가 시작될 즈음 交杳酒를 마시러 학교에 올라가다가, 그녀와 그녀옆에 있는 웬 남자가 남들 시샘을 살 정도로 다정하게 얘기하며 걸어가는 풍경을 기어코 발견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쉽사리 발길이 돌려 졌습니다만 가슴 깊숙이 저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앞에 방 언어 가지고 선배형과 같이 있어도 봤지만 공부될 리가 없었고, 시험은 계속 실패였습니다. 각 과목 5회독도 목 채운 채 어찌다가 걸맞지 않게시리 法政大 首席卒業이란 상장하나 받고 졸업식은 끝났습니다.

어차피 노장대열에 낀 몸, 제대로 공부좀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적을 두었습니다. 마침 학과 조교자리가 비어서 그걸 또 맡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앉아 가만히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바빠 돌아다니야 할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하루종일 왔다갔다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피곤해서 쓰러져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나오기가 또 바빴습니다. 길잃은 철새가 되어 고시도 여자도 포기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의 작당으로 野外미팅을 한번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괜찮은 여학생을 파트너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평대신 닭인지 닭대신 평인지 좌우간 내심으로는 꽤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 스스로 먼저 편지하겠노라고, 그리고 다음 자기학교축제파트너로 초빙하겠다는 대목에 가서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럴수가.....김치국을 한사발쯤 들이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얼굴엔 금새 생기가 오르는 듯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제 친구도 있고 해서 어찌다가 하루는 인천엘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교생실습 나와 있는 학교에 열심히 전황 걸었으나 계속 불통이었고, 추천한 친구가 대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헌데,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지나서 친구 혼자 행하니 눈이 들어간 모습으로 다방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사귀고 있는 놈씨가 있어서 도저히 자기는 나갈 수가 없대나요. 아니, 먼저 연락한다고 선수를 친 사람이 누군데, 코빼기조차 안 보여 주다니..... 갑자기

기 무슨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동인천역 개찰구에 표발는 아저씨와 같이 서서, 한참동안 몇 대의 열차를 보내며 퇴근길의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재수가 좋아서인지 아마 그녀는 버스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부평에 있는 학교로 찾아갔으나, 토요일인지라 숙직선생 혼자만 텅 빈 학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망상조각은 깨지고 결국, 수평선 너머로 쌍고동이 슬피 울고 가는 연안부둑가에서 실컷 술만 퍼마시고 밤 늦게서야 겨우 씩씩한 발걸음을 집으로 가눌 수 있었습니다.

그담엔 또 무슨 팔자소관인지 어쩌다 초등학교때 여자반장이었던 아가씨를 우연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충 얘기가 오가는 사이에, 자기는 친구사이 이면 몰라도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침부터 단단히 못을 박으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버센스.....미친 녀석처럼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노니 역시 내게는 .....

藥大 그 여학생이나 再侵해 보자는 결심만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국은 일(?)인지 우연히 梨大 앞 다방에 가 앉았다가 다방문을 밀치고 오는 그녀와 그 남자의 환허어린 두 얼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 하느님도 너무 하시구나, 뒷자 맞은 것만도 서러운 판에(당연한 건지도 모르지만) 또 그런 모습을 꼭 내 눈에 보여줘야만 하나.....하는 생각에 친구를 앞에 놔두고 혼자 정신없이 다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허나, 권총자살한 젊은 베르테르도 될 수가 없었고 탈쓰고 춤춘 처용이도 못된 채, 그저 허공만 응시하며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건 와중에 21回 行試가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재정학으로 고전했으나 一次는 그럭저럭 합격은 했고 거의 준비 안된 상태로 二次 끝까지 버텨보았습니다. 결과는 평점 60점을 넘었으나 경제학이 39.66으로, 장초부터 쓰일 바 없던 내이름 석자는 신문명단에서 빠졌고, 친구들의 합격에 축하악수만 보냈습니다. 공부안한 덕분에 따라지가 됐으며 그리 억울한 건 없었으나, 경제학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란 문제는 아직도 의문이 갑니다.

설경의 마루턱..... 그녀의 졸업식에 그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났고 끝내 그녀는 영영 내 시야의 언저리에서 아스라이 사라져갔습니다.

버스타려고 내려 가면 나보기가 역겨워서인지 자기는 꼭 창경원까지 한 정류장 더 걸어가서 차를 타곤 했더라도 그래두 졸업하기 전이 좋았었는데, 이젠 보고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를 통해 소식은 들었지만 그도 저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멀건히 그녀가 머물다간 약대앞 파란 잔디밭에만

물빛 감상의 초점이 벗어지곤 했습니다.

“.....못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언젠가 잊을 날 있으오리다.....”

연보라빛 꿈이 허물어진 뒤, 노상 김소월의 이 시귀절을 읊조리며 아예 잊으려고 무진 애쓴 시간이 늘어갔지만, 한사코 그녀의 얼굴은 내 망각의 무덤 속에 묻혀지질 않았습니니다.

단조하고 초라한 내 인생 별판에 보석처럼 박혀진 얼굴.....이젠 숙연히 눈을 감고 그녀의 여문 행복만을 빌고 싶을 따름인지 그녀곁에 있던 남자가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멓지만 내게 부러운 존재였습니다.

계속된 잿빛고독과 미련이 산처럼 쌓이고, 시험까지 안되고 집안사정도 급변하여, 돌아보면 여지없이 구겨진 일상의 표정뿐.....급기야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뇌리속에 그려졌습니다. 왜 사는건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자체에 대한 懷疑가 至難의 aporia로 하여 머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人生은 그저 이 대지 위에 잠시 머물다 초채하게 떠나가는 슬픈 그림자요, 빈항아리 같이 내용없는 인생이며 죽음앞에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초조한 단정이 내려지고, 가을이 돼서 퇴색한 낙엽이 지듯 인생의 黃昏期가 되어 내 호흡이 終末을 고하는 날, 난 어디론가 쓸쓸히 사라져갈 거라는 생의 마지막 연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산다는것 자체가 더없이 허무해지고 살아간다는 내 자신이 가련하고 불쌍해졌습니다.

흠씬 自嘲와 懷疑가 씩히고 늘 한계상황이 思辨의 숲에 담뱃 깔리워졌습니다. 더구나, 歷史에 남는 건 고사하고 허구한 날 가난과 모멸속에서 허덕이다 자취도 없이 주락해 가는 우리네 범속한 세인들에겐 더욱 허망하고 쓸쓸하기 그지없는 삶이요, 그렇다고 달리 어쩔 도리도 없이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자신의 숙명의 껍질을 건어버릴 수 없는 게 인간굴레이며 생의 조건임을 지감하였습니다.

높다란 청자빛 하늘아래 사루비아꽃이 붉게 大成路의 화단을 물들일 즈음, 哀想과 詩心の 9월은 몰려왔고 일차준비로 꺼병한 수험생들의 모습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쟁피한 건 둘째치고 이제 군대가기전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얼떨결에 고시반 옆방에 자릴 얻어 낮엔 학교일 보고 밤에 공부하려 했으나, 자동판매기 커피잔 하나 들고 얘기 시작했다하면 보통 밤 11시, 12시도 마다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럭저럭 1회독하고 22回 行試에 임했습니다. 결코 자신은 없었으나 이는

대로 들은 풍월대로 읊기기로 하고 만년필을 왼 손에 힘만 자꾸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사가 그렇듯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날 노동법과 조방 선택 두 과목이 모두 속을 썩였습니다. 예상못한 문제들만 속속 두루마리에 튀어나와 애가 닳으나 역시 어쩔도리가 없었습니다. 반 포기 상태로 2시간씩 용케 버티고 황급히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계속 공부해서 학교에 남겠다는 말도 차마 못하겠고 그렇다고 시험에 되는 것도 아니고.....막연하고 막막한 시간의 흐름만 이 발표날을 자꾸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도 뜻밖에 상위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으나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야 막걸 리가 넘어갔습니다.

보람띄운듯 내안을 돌아오는 한 여율이 있었으나, 결코 엄청난건 아니었습니다. 기뻐 날뛰거나 잔치를 벌일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매듭을 지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 Ⅲ. 소위 試驗方法論

#### 1. 女子問題

저의 경우에 있어서 여자문제는 너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합격을 늦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으나, 갖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그만큼 아주 현명하고 계산빠르며 영악해서, 저같이 어수룩한 남자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못난이를 택할 만큼 시력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유달리 저는 어려서부터 까닭모를 그리움과 아쉬움이 많은 편이었고 조속해서였는지 누구보다도 하얀 것의 사랑을 갈구했었으나, 평소에 별로 생각안나는 분이사라면 굳이 여자를 사귀려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여자의 一生에 있어서는 역사가 되지만, 남자의 一生에 있어서는 하나의 삽화에 불과하다”느니, “사랑을 앓느니 보다는 사랑을 해서 失戀을 당하는 편이 낫다”는 호이론에 매료되선 아니 됩니다.

#### 2. 健康問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건강문제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논다는 식의 육신관리방안이 지



론이었으므로 특별히 건강에 신경 안 쓰고도 늘 70kg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게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 3. 經濟的인 問題

저도 집안환경에 갑작스런 변화가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많았지만 아르바이트 안 하고도 그럭저럭 견딜수는 있었습니다. 가급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좋고,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로 실망하거나 포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만큼 그 외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되고, 우리네 살림에 환경을 맞추어 주기는 쉽지 않은 고로 사람이 환경에 적응할 수 밖에 없겠지요.

### 4. 具體的 試驗方法論

#### (1) 一次試驗

전일부터 一次에서의 판견은 영어였는데, 요즘엔 재정학이 또 어려운 과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른 왕도는 없으니 영어는 평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편이 좋을테고, 재정학은 먼저 二次시험과목인 경제학과 행정학을 훑어본 뒤에 하면 다소 수월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一次 4과목 모두 객관식문제집 두어권씩은 풀어보고 갈 필요성이 있고, 시험당일날 아침 民總 184個 조문을 꼭 읽고 가십시오.

#### (2) 二次試驗

##### 1) 단권주의

가급적 남들이 대체로 많이 보는 책을 기본서로 삼아 한권만 계속 읽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다른 사람 저서도 참고로 보다가 빠진 부분만 여백이나 다른 종이에 써서 붙여 보충하며, 二次시험 전날밤은 한과목 전체를 쭉 훑어보고 간다는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2) 문제집의 적절한 활용

서브노트는 시간과 노력에 비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차라리 자기 기본서와 체계나 내용이 유익한 문제집을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출제방향이 큰 것 한 문제에다 작은 것들도 몇 개씩 나와서 문제집 위주의 공부는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 3) 수험잡지의 구독

考試界등의 수험잡지를 구독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경향, 새로운

이론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가끔 합격생들의 답안 중에 정리가 잘 된 것은 뜯어서 기본서에 붙였습니다.

#### 4) 속독과 정독의 병용

정독은 철저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너무 지루하고 능률이 안 오르는 것 같으며, 속독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나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올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대체로 속독→정독→속독의 순서로 보는 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5) 학교강의의 충실이 또 중요합니다.

#### 6) 답안작성

글씨자체는 별 영향이 없으므로 깨끗이 쓰도록만 노력하면 될 것이고,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베낀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타이틀을 붙여서 (따라서, 같은 책을 기본서로 삼았어도 답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초안작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사 전혀 예상밖의 문제라도 당황하거나 중도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는 대로 써주려는 태도 또한 긴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안배를 잘하되, 분량은 각 문제마다 배당된 점수에 비례하도록 하면 무난합니다.

#### (3) 三次試驗

三次試驗은 막상 임해 보니까 그리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 維新理念 정도 이해하고 머리 깎고 복장 단정히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 불안하신 분은 헌법, 행정학, 행정법 한번 읽고가면 될 겁니다.

#### 5. 공부장소

공부장소는 굳이 구속받을 필요없을 테고, 기타 강한 성취의욕과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웬만한 정신적 신체적 진통이나 아픔은 악으로 버티봅직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닌가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공무원으로 진출 아니하더라도 또 반드시 行試가 아니더라도 학교 다닐때 그런 목표없이 다니는 것과 어떤 목적의식하에서 학교생활하는 것과는 어딘가 모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뜻을 지니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송장이며 뜻을 지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뼈없는 인간이란 오명을 헤어날 수 없는 까닭에 남자로서 雄志를 지니고 그것을 이루려하는 기상이야말로 슬기

로운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또, 언젠가는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날들이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꼭 도래하리란 신념을 가지십시오.

#### IV. 맺음말

모든 것이 끝난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좀더 해맑은 마음으로 꾸준히 묵묵히 정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어떤 관계는 완전히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빨리 잊혀졌으면 하고 바램해보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저 하늘아래서 호흡하고 있는 한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내게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고, 비록 일방적인 것이었으나 그만큼 사랑했었나 봅니다. 어느 기다림의 영역에서 설익은 추억을 간직한 수줍은 가슴내의 가슴마냥 애타게 메아리만 안고 돌아오면서....., 소소한 마음으로 조용히 또 지금 어느 지붕밑에 있을지 모를 그녀의 행복만을 빕니다. 먼훗날까지.....

그저 이 모두가 「나」라는 보잘것 없는 한 인간의 작은 삶의 일부요 과정 뿐 일테니, 차갑고 벽찬 현실이라해서 아픔과 외로움과 우수를 저버리거나 외면해선 안되며 다 내자신의 것으로 애듯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생의 부담이 누적되고 불운한 실패의 연속을 겪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구천으로 치닫는 노릇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비극의 연출이요 비겁하고 졸렬한 所致이며, 그 괴로움과 시름의 傷痕들이 내가 實存해 있다는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證佐이며 結晶이요, 우리는 어쩌면 그 속에서 좀더 그윽한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계속된 실패로 비록 내놓은 자식취급은 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걱정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누나, 형, 매형.....그리고 鄭學長님, 尹교수님, 許교수님, 韓교수님, 張교수님, 鄭교수님.....그외 많은 학교형들..... 이분들 아니었으면 그나마 이런 過去를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가졌을 겁니다. 지금도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H. B. L. K형..... 수선관 4층에 계신 분들의 조속한 승격과 환호성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考試界社의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머리를 숙입니다.

.....다시 또.....한 많고 설움 많은(?) 過去를 묻지 마세요.

모처럼만에 펄펄 날리는 저 흰눈을 맞으며, 또 어딘가를 아무 생각없이 진정 그리 훌연히 걷고 싶을 따름입니다.